

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, 2024년도 농촌 집 고쳐주기 사회 공헌

✎ 이병인 기자 | ☎ 승인 2024.09.27 14:58



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진/청양지사 제공.

[중부매일 이병인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(지사장 서봉수)직원들은 지난 27일 청양군 남양면 강모씨 자택을 방문하여 2024년도 농촌 집 고쳐주기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했다.

이번 사회공헌활동은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와 다솜동지복지재단이 농어촌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편의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.

이날 지사 직원들은 주택이 낡고 오래되어 생활환경이 취약한 농가의 담장설치공사 등을 실시하는 한편, 농가 주변의 환경정리, 정리정돈 등 작업을 실시했다.

해당 농가 강모씨는 "바쁘신 중에도 낡은 주택을 새롭게 고치느라 힘써주신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"고 전했다.

서 지사장은 "앞으로도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농어촌지역 취약계층을 지원하고, 참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등 공사의 ESG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어 가는 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"고 밝혔다.



이병인 기자 byung813@jbnews.com